

보도시점 2025. 4. 11.(금) 17:00 배포 2025. 4. 11.(금) 13:00

공급망 정책 연구·분석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기관 협의체 출범

- ‘공급망 정책연구 네트워크’ 출범 회의 개최

- 공급망 정책연구 네트워크 운영방안 및 기관 간 연구·분석 협업방안 논의

정부는 경제안보 및 공급망 정책에 관한 연구·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4월 11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국내 공급망 분야 13개 연구기관*을 한데 모아 ‘공급망 정책연구 네트워크’ 출범 회의를 개최하였다.

* 금융기관(3개): 한국수출입은행, 한국은행, 한국산업은행

유관기관(3개): 한국해양진흥공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한국광해광업공단

연구기관(7개): 한국개발연구원, 산업연구원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에너지경제연구원,
한국농촌경제연구원,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한국평가데이터

‘공급망 정책연구 네트워크’는 정부가 발표한 ‘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(’24.12월)’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하였으며, 향후 글로벌 공급망 현안에 대해 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연구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.

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공급망 관련 연구인력 현황 및 기존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으며, 올해 기관별 공급망 연구계획 및 연구수요를 논의하였다. 또한 공급망 연구·분석과 관련한 각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국내외 공급망 연구동향 공유플랫폼 구축 등 기관 간 협업방안도 제시되었다.

이를 통해 경제안보와 관련한 유관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과 통상 리스크에 대한 국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, 정부-기관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형렬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“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한바, 동 협의체가 공급망 연구 협업 플랫폼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”고 강조하였다.

한편,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를 기반으로 금년 중 ‘공급망 정책연구 포럼’을 개최하여 기관별 연구·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정책담당관	책임자	과 장	최지영 (044-215-7870)
		담당자	사무관	최인철 (fepchoi67@korea.kr)

